

■ 상하이 F1 참관기- 전남 F1이 배울 점

열기·운영·정부지원 '3박자 성공질주'

지난 15일 막을 내린 F1 상하이 그랑프리 다양한 경기장(서킷) 임대 사업으로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또 대회 개최지인 상하이 일대에 국제 자동차단지를 조성하는 등 세계 3대 스포츠인 F1을 지역 산업발전으로 연결하는 장기 전략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다.

결승전이 열린 15일, 대회 3시간 전인 낮 12시부터 상하이 서킷에는 10여만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다. 경기장 입구부터 길게 줄을 선 관람객들은 '레드불', '맥라렌', '페라리' 등 각 응원팀의 옷과 모자를 갖춰 입고 열띤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국내 프로야구처럼 중국 F1에는 응원문화가 자리 잡은 셈이다.

중국은 포퓰러한 매니지먼트(FOM)와의 첫 계약 이후 7년간

3일 내내 매진... 후단지 조성 지역발전 견인
3개 국영기업 서킷 건설비 지원·운영비 부담
대회 이후 임대수익만 208억원... 적자폭 줄여

(2004~2010년) 대회를 개최한 뒤, 다시 재계약을 맺고 자국 F1 드라이버를 육성하는 등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상하이 출신 마칭화(26) 등 수많은 예비 드라이버들이 정식 F1 대회에 초대받기 위해 F2 등 하위 대회에서 기량을 닦고 있다.

4억5000만달러의 상하이 서킷 공사비와 개최권료·운영비 등 4300만달러의 개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관람객 유치

승전 등 3일만에 걸쳐 열리는데, 상하이는 매일 9만석의 관중석을 거의 채워 대회기간 22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날 결승전도 압도적 가짜 입장권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또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국 F1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3개의 중국 국영기업이 상하이 서킷 건설 비용을 지원했고,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개최권료와 운영비를 전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국내 F1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은 상하이 서킷 인근에 상해 국제자동차단지를 조성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동차 무역 핵심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상하이는 또 F1 대회가 끝난 뒤에는 서킷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상하이 서킷 하루 임대료는 5700만원. 각 국의 자동차 회사의 성능 실험과 시승식, 각종 아마추어 대회를 거의 매일 유치해 한해 208억원의 벌어들이고 있다.

반면, 국내 F1 조직위원회는 17일 현재 영암 서킷 임대수입으로 2억3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서킷 임대 사업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고, 사용료도 구간과 요일에 따라 1350만~36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F1 중국 그랑프리 결승전이 열린 상하이 서킷에 10만여명의 관람객이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北, 개성~신의주 외자고속도 신설 추진

中 건설사 참여 요청해도 투자비 회수 불투명 꺼려

북한이 중국 등의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개성~신의주 고속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이 방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계획하는 신규 고속도로는 총 길이 387.1km에 왕복 6차로로

개성과 평양, 신의주를 잇는 현대식 고속도로로 건설된다.

이와 별도로 신의주에서 평안북도 향산을 잇는 총 길이 80km 이상의 왕복 4차로 지선도로 건설도 추진된다.

이들 도로 구간에는 휴게소 12곳, 톨게이트 19곳, 인터체인지 18곳, 교차로 1곳이 예정돼 있다. 자료에는 총 건설비가 65억달러이며, 미국의 설계·공역 회사가 고속도로의 설

계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이 계획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건설회사들에 도로건설 투자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탓에 아직 실행을 내세우는 건설회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도 야도 "안철수 대신 입장 밝히라"

문성근 "국민경선 참여" 심상정 "빨리 결단 해야"
김종인 "박근혜와 1대1 해볼만" 이혜훈 "국민 검증"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 안원장 등판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4·11 총선 이후 대선 모드로 전환된 상황에서 안원장이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성근 민주당 대표권한대행은 17일 한 TV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원장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민주당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안 원장이) 한나라당 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기여했으며 이번 총선에도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넓은 의미의 동지다"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민주당 당적으로 당내 경선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고

가설 정당을 만들어 후보들만 입당해 국민 참여 경선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17일 안 원장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의지가 있다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안 원장이 당적을 갖고 출마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묻자, "이제 대체론이란 없다"며 "이같이 있다면, 최근까지 애매한 태도를 취한 안 원장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 정치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여당 인사들도 안 원장의 애매한 태도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조속히 입장을 밝히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안 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빨리

(대권출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 정정당당하게 나오는 게 낫지 애매모호한 말을 자주 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안 교수가 1대1 구도가 된다고 해도 밖 위원장이 큰 위협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안 교수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안 받은 만큼 실질적 검증 절차를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밝혀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안 원장이 대선 도전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과 관련, "빨리 본인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회회관에서 "국민이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그런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용 세계은행 차기 총재 선임

7월부터 임기 5년

김용(52·사진) 다트머스대 총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 차기 총재로 선임됐다.

세계은행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총장이 이날 열린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경쟁자였던 응고지 오펜조-이웨알라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누르고 차기 총재로 선택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사회 투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김 총장을 후보로 지명하면서 김 총장이 총재로 선임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이전 세계은행 총재 11명이 모두 금융이나 외교 분야 전문가로 백인 주류층이었던 것과는 달리 김 총장은 한국계인데다 금융 쪽 경험은 거의 없는 인물이라는 지적을 받던 때 많은 사람이 의외로 받아들였다.

김 총장은 로버트 졸릭 현 총재의 뒤를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5년간 새 총재 업무를 맡게 된다.

김 총장은 중남미 등의 빈민지역에서 결핵이나 에이즈 퇴치를 위한 의료구호활동을 벌여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20여년 간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결핵 퇴치와 국제 의료활동에 앞장섰고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국장, 하버드 의대 국제보건·사회과학과장을 역임했다. 2009년에는 다트머스대 제17대 총장으로 선출돼 '아이비 리그'의 첫 한국계 총장이 됐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5세 때 부모를 따라 아이오와주에 이민했고, 브라운 대학을 나와 하버드대에서 의학박사와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직원 9000명의 거대 국제기구로, 작년 기준으로 258억 달러를 각국에 지원해주고 있다.

北로켓 '강력규탄' 의장성명 채택

유엔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 동부 시각으로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각 16일 오후 11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strongly condemn)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사를 단다.

안보리는 의장 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이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

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발사자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deplore)"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약정 특허등록·3개최우수기업으로선정된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표사이트!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이 함께하네!

검색 | 다와옥션 |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 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 / 저녁 : 7시 (3개월, 14주,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실전문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 10시(임장시 오후까지) (3개월, 14주, 50만원)
○강사 : 안 성욱 교수(저자직강)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효성공인중개사 공장·창고 전문

공장 임대

① 250평 : 전기 300kW (하남) 호이스트5t 보증금5,000만 / 월450만(분할가)

② 120평 : 전기 100kW (평동) 호이스트3t(신축) 대로코너. 보2,000만 / 월220만

③ 100평 : 대로번코너. 신축(본층공단) 보3,000만 / 월230만

★ 물류창고 ★

① 293평 : 하남공단 보5천만/월450만

② 100평 : 본층공단 보2천/월220만(신축)

① 본층공단 : 대923/건500평 호이스트3t 매매가13억5천만(최근건물)

★ 물류창고 부지매매(급매) ★

★ 어린이집 요양원 부지 ★

① 양산동 25m대로변. 200,300평당 160만

② 신안동 10m대로변. 280평 190만

T. 062) 521-6024 H. 011-602-4207 F. 521-6026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만원
-용도가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 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광주시내 2중 주거지역 토지구합

-면적 500-1000평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르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평주은행 신문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프장 및 예식장을 급매로 찾습니다.

매수매도 대기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전라남북도 일원의 투자자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경매나, 공매로 노출되지 않고도 가격은 더 안정된 확실한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매매 또는 교환으로 고객님의 취향에 정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매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물건 또한 간단하고 쉽게 해결해내는 본 업체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 푼 쟁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주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무나 (매매)
지역 ■ 북구 삼정동 (사우현 성일동)
면적 ■ 대지 9000평, 건물 : 2500평
지역 ■ 서구 차평동 (삼우지구 상/빌딩)
면적 ■ 대지 (1000평, 건물 4000평)
지역 ■ 삼우지구 사우나현 성일동

최함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 ■ 광양 1면동 ~2면동(이상 50평~100평)
지역 ■ 광양 1면동 ~5면동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